

무용(無用)의 쓸모

; 서로 다른 이야기

자기소개

구해림 (선셋)

노을 좋아해요. 빛의 산란도 물론 아름답지만 해가 지는 것, 죽는 것, 끝나는 것, 하강하는 것 이라는 느낌이 슬퍼서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노을 여행 구상하고 있고요. 덕성여대 재학 중, 스물하나 되었습니다.



권혜린 (빵떡)

좋은 향을 풍기고픈 권혜린입니다. 통통한 볼이 빵떡같은, 누군가를 나로 물들이고 싶은,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맞춰 살아오다가 내 세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제 세계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누군가의 혜린이 아닌 "혜린" 그 자체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권희정 (희페이퍼)

성신여대에서 불어불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22살, 감성 부자입니다. 필명은 나름의 언어유희예요. 맞춰주세요.

김유진 (김꾸꾸)

연세대에서 국어국문 전공 중. 문학도라고 스스로를 칭하기엔 문학에 너무 문외한인 듯. 요즘은 인문학도라는 말을 더 좋아함. 따뜻한 인문학도가 되려고 노력 중. 필명은 뭐 언제나 그래왔듯이. 꺾꺾이 더 익숙하지만 워드 작업할 때 고생하는 이름이라 이번에는 꾸꾸로.

김태훈 (시마)

가천대 회공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이다. 인문학적인 공대생을 꿈꾸고 있다. 필명은 다시마에서 따왔다.

김한송 (네모)

올해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한 스무살 김한송 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동그라미 처럼 툭 치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이젠 중심을 잡고 내 생각을 실현해 나가고 싶어서 툭치면 움직이는 한이 있어도 결코 굴러가지는 않는 네모가 되고 싶어서 필명을 네모로 했습니다.

박재형 (형형)

23살의 숭실대생, 세월을 못 피함. 아버지보다 형 두 번이 나음

유승희 (펭펭)

성균관대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스물두 번째 해를 보내고 있다. 읽고 쓰는 삶이 온전한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매번 선언만 하는 사람. 필명은 친구가 지어줬다. 덕분에 스스로가 펭귄을 닮았다는 착각 속에 산다.

이송현 (지니)

상명대 한국어문학과에 재학 중이다. 문학적인 삶을 살고 싶다. 필명은 램프의 요정 이름을 따 지니로 했다.

이재성 (뿌연)

아직도 꿈을 찾아가고 있는 나. 대학에 와서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은 것들을 해봤고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 문학을 써본 적이 없고, 문학을 잘 모르지만 마주할 땐 즐거워한다. 필명은 이상에 관한 글 「안개」에서 따온 것이다. 그냥 그러하다.

무용의 쓸모를 향하여

자그마치 10개의 이야기가 만났다. 타인을 향한 호의가 의심 받는 이 세계에서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래 생각해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304명의 세계를 태운 배가 바다 한 가운데서 무참히도 가라앉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는 19살 청년에게는 컵라면 먹을 시간조차 사치로 여겨지는 잔인한 세계에서 청년들의 이상(理想)을 팔겠다는 이상한 시장, 그 곳에서 우리는 만났다. 수많은 우연 중에서 무용의 쓸모라는 모순적인 이름이 우리를 만나게 했을까?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마주했다. 각자의 이상, 각자의 문학, 각자의 세계. 그 모든 기록의 시작이다.

1부는 이상(理想)을 주제로 쓴 글을 묶었다. 생각보다 다양한 꿈과 현실이 담겼다. 2부는 그동안 자유롭게 쓴 글을 묶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10개의 시선이 담겼다. 3부는 문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인터뷰 형식으로 묶었다. 문학을 향한 우리의 질문이 담겼다.

앞으로 당신이 펼쳐볼 이 책은 결코 타인이 넘볼 수 없을 10개의 소우주가 만나고 깨지면서 확대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모든 게 서투러도 괜찮다. 마치 그것만이 앞으로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마냥,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다워질 것이므로, 이 세계를 사랑하는 당신들과 함께 하며 나 역시 이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꿈을 꿨다. 감히 말하자면, 찬란하게 빛나는 계절의 시작이다.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2016년, 무더운 여름 속에서
유 승희

차례

자기소개 1

무용의 쓸모를 향하여 4

1부 _ 이상을 말하다 8

- ▶ A에게 쓰는 편지_권혜린 9
- ▶ Je suis étudiante_희페이퍼 11
- ▶ ZERO와 ONE의 만남_김규규 12
 - ▶ 무제_형형 17
 - ▶ 안개_뿌연 18
 - ▶ 영원과 선구자_선셋 19
- ▶ 이 세상의 모든 J에게_유승희 21
- ▶ 이상, 그 설레이는 말_시마 23
 - ▶ 이상 理想_김한송 24
- ▶ 한 청년의 이상(異常)과 이상(理想)_이송현 25

2부 _ 나를 말하다 28

- ▶ sUnSeT bOy_선셋 29
 - ▶ 결핍_김규규 30
 - ▶ 그대_시마 31
 - ▶ 그해 유월_유승희 32
-

▶ 달힌 글, 다친 글_희페이퍼 33

▶ 당신과 바다_김규규 35

▶ 도플갱어_시마 36

▶ 봄이니까_권혜린 37

▶ 비 오는 밤_권혜린 39

▶ 안경_이송현 41

▶ 안녕_이송현 42

▶ 축제1_유승희 43

▶ 春雨落日_형형 44

3부 _ 문학을 말하다 45

편집후기 71

1부

이상을 말하다

A에게 쓰는 편지

권혜린

A야.

사람들을 만날 때 난 “다름” 자체가 문제인줄 알았어.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다름을 받아들일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였어. 별게 다 귀여워 보이고, 뜬금없이 사랑에 빠졌던 걸 깨달았을 때, 넌 이미 내게 스며들었더라.

“내가 왜 좋아?”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사는 너잖아. 똥똥했으면 안 좋아했을 거냐, 눈이 더 작았으면 안 좋아했을 거냐 묻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라서 예뻐. 네 외면이 변해도, 내 두 눈은 안 변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같은 질문을 네게 되물으니 어이없다는 듯 웃었잖아. 그리고 며칠 후 제법 진지한 얼굴로 말을 걸어올 때 많이 놀랐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뭘?”

“너를 안 좋아할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 여기도 멋있고 저기도 멋있고 또”

“아 알았어, 그만해도 돼~”

“아니 진짜 진지해! 너를 어떻게 안 좋아해.”

그 말 계속 맴돌았어. “너를 어떻게 안 좋아해.”네가 한 그 말이, 반복되는 네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야. 너는 나에게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작은 선물을 줘도 그보다 더 큰 미소를 돌려준 너에게 고마워.

기쁘게 한 보람을 준 너에게 고마워.

손 뻗어야 닿는 수많은 관계 속, 너만큼은 손 뻗지 않아도 닿아줘서 고마워.

가끔 스쳐가도 되는 일에 상처받고, 놓아버려도 될 인연도 놓지 못하는 널 보면 내 맘이 쓰려. 살다보면 간혹 상처받을 가치가 없는 일들이 있어. 네가 상처 받는 게 불가피하다면, 상처받을 가치가 있는 일에만 상처 받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린 A야,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도 좋아. 힘들 때만 옆에 있을 게 아니니까. 즐거울 때도 함께 할 거니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순 없지만, 적어도 나에게 넌 좋은 사람이야. 소나기로 내린 너에게 난 흠뻑 젖었어. 이슬비여도 폭우여도 좋으니 앞으로도 내게 내려주렴.

<설명>

장르: 소설

내용 설명: 내 인생의 큰 목표중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써주는 형식으로 글을 써봤다. 여기서 화자는 내 이상형이기도 하지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내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Je suis étudiante

히페이퍼

신입생 때 과잠을 입고 탄 지하철에서 내 앞에 앉아 계시던 아저씨는 대학생이냐며 말을 걸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 무슨 과냐고 물었고 나는 '불어불문 전공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돌아오는 대답은 "불문이면 불교를 배우는 종교 학과인가?" 라는 질문이었고,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고, 이걸 상대방이 부끄러워 할까봐 내 나름대로의 배려였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큰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뭘 하는데? 그거 배워서? 요즘 같은 취업난에...." 'france'라고 적혀있던 내 등으로 관심이 쏠리는 기분이었고 오히려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거 같아 자리를 급하게 옮겼다. '이상한 아저씨다'라고 생각했는데, 학교를 몇 년 다니고 전공을 소개 할 때마다 나는 이상한 곳에 살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내가 인문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있어서 걱정의 대상이 되거나, 안쓰러움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무시 대상이 됐다. 간혹 가다 만난 사람들은 '멋지다'라고 말해줬지만, 그마저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건, 우리학교에도 '프라임 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부터였다. 기술적인 것, 실용적인 것이 주가 되는 학과는 '글로벌 선도 분야로 확장'되었고, 기초 학문 분야로 분류된 인문대의 과들은 통폐합되었다. '나는 멋진 학문을 배우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기에 사회는 인문대를 계속 구석으로 몰아갔다. 기본을 배우고 기초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엄마는 항상 말해왔는데, 엄마가 틀린 걸까.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감상을 나누는 일은 사치스럽거나 혹은 쓸모없는 일이 되었고, 학문의 차별이 없는 사회의 이상을 말하는 나는 어느새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인문학이 최고의 학문이 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모든 학문이 차별받지 않고, 내가 배움을 시작할 때 망설임의 이유가 사회의 분위기가 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모든 학문은 그 학문만의 가치가 있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갈 일이 아니다. 내 이상은 여전히 이상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배우는 학문을 애정하고, 아끼며, 사랑한다. 또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멋지다고 말해주고 싶다. 어떠한 학문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문이든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언젠가 내가, 아니면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프랑스어를 배워보기로 했어' 혹은 '서어를 시작 해 보려고'라고 말했을 때, '그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중국어나 해'가 아닌 서로가 인정해주는 사회가 오길, 이걸 배워서 어디에 써먹지가 아닌 내가 배우는 학문이 자랑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우리의 삶이 유행이 아니듯이, 우리 삶에 가까운 학문 또한 대세를 따를 일이 아니며, 뭐든 어딘가에 '유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 이 '유용'의 의미는 누가 정하고 누가 측정할 것인지는 그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내 이상은 아직 뜬구름 잡는 소리며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남아있다. 모든 것이 이성적이고 명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계속해서 꿈꿀 생각이다.

ZERO와 ONE의 만남

김규규

0.

어느 아이가 학교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골목을 쏘다니다가 일기장으로 추정되는 종이책을 발견하였다. 어느 골목 어느 낡아빠진 우체통에서 주웠다고 했다.

1.

나는 오늘도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0.1.

종이책이 발견된 것은 희한한 일이었다. 이제 더 이상 종이는 없다.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화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그림과 모든 음악과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이 0 아니면 1로 변환되었기 때문이다. 즉, 더 이상 종이 존재할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지도 벌써 nnn...n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1.1.

디스토피아란 유토피아의 반대말이다. 그렇다면 유토피아란 무엇일지 상상해본다. 유토피아란 이상(理想)이 이루어진 세상인 게 아닌가.

0.2.

그러나 종이책은 중요한 자료였다. 아직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은 각종 사료들을 모아 0 혹은 1로 만드는 작업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애초에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애, 그거 내 동전 다섯 개랑 바꾸지 않을래?”

이제 곧 버스가 도착할 것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와 종이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다. 최단거리를 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지만, 단단히 미친 모양이다. 종이책을 다섯 개의 동전과 바꾼다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무시하고 책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말이다. 아이는 아마 정기건강검진에서 비정상 판정을 받아왔을 것이다. 매일 센터에서 어린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 교재를 소리 내어 읽고 있을 것이다.

1.2.

다시 이상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전쟁이 없는 것? 기아가 없는 것? 차별이 없는 것? 부정(不正)이 없는 것?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모순적이

게도 이 모든 것은 끊임없는 전복의 역사 속에서 정립되고 해체되고 다시 정립되었다. 언어나라는 것은 빈약하지만 빈약하지 않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기아란 무엇인가? 차별이란 무엇인가? 부정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의 문제는 중요하다.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그 대표적인 전복의 역사일 것이다. 신흥세력인 부르주아는 계급을 뒤엎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평등한 세상은 잠시 온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평등이라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새로운 위계를 교묘하게 감추기 위한 달콤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 슬슬 다들 알지 않을까. 다시 해체의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0.3.

하지만 주치의에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비정상 판정이 나를 비켜갈 것 같지는 않다. 연구소까지 직행으로 가장 빠르게 가는 버스를 지금 타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는 구시대의 것입니다. 그동안 축적되어온 인간 경험이 당신을 영원히 수호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실패로 인한 낙오는 없습니다. 모두가 성공하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버스 타는 것을 포기하고 어린애와 케케묵은 종이책을 가지고 얼마에 팔 것인가를 흥정하는 것도 이상하다.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종이책을 원하는 것은 그래, 뭐 있음직한 일이다. 말했듯이 모든 것을 0 아니면 1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현재진행형이며 그 작업 종사자가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면 종이책은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종이책은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누군가와 협상을 한다는 행위이다. 협상이란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다. 결론은 이미 전부 완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이제 없다.

1.3.

계급의 철폐와 더불어 만민은 평등하다는 믿음은 누텔라 만큼이나 달콤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억압은 없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이 당신을 영원히 수호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은 없습니다! 당신이 노력한 만큼 가져가세요!”

과정이 어떠했던 구호는 유효했다. 유효했었다. 유효했어야만 했다.

0.4.

현재는 최선의, 오차 없이 확실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최고의 결론이 오랜 인간의 역사를 거쳐 내려진 상태이다. 인류는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경험했다.

1.4.

사회는 여전히 그들이 말하는 평등을 부정(否定)하고 그들이 말하는 성공을 거부하는

나를 비난한다. 성공하라고 말한다.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는 자는 인간도 아니고, 성공하지 못하는 자는 쓰레기라고 말하며 내 등을 떠밀려고 한다.

안쓰럽게도 나는 떠밀려지지 않는다. 좀 떠밀려졌으면 좋겠다. 나는 체제 속에 있지만 그 안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채 체제의 가장 꼬트머리에서 깔짝거리고 있다. 외로우면서도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체제 안이든 밖이든 그 중간이든 사람 삶이란 게 비틀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따뜻하다. 세계는 완벽할 수 없다, 는 것이 오랜 연구의 결론이다.

0.5.

버스 안에서는 노약자일수록 앞자리에, 젊고 튼튼할수록 뒷자리에, 안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사람들이 앉아있다. 차곡차곡 말이다. 라디오는 인간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소리 크기로 틀어져있다.

“시행착오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문명 발전 세계에서는 오로지 모든 경우의 수가 검증된 최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버스는 가장 효율적인 속도로 달리고 있다. 버스기사라는 직업은 이미 없어지고 0과 1의 조합으로 그러한 직업이 있었음만이 기록되었다.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 가장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한다. 그것은 눈을 감고 반듯하게 앉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멀미가 나지 않고, 시선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이유도 없으며, 옆 사람이 기분 나쁠 정도로 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멀미가 나지 않으니 구토를 한 사람이 당황해하면서 바닥에 흥건한 토사물을 치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니 싸움이 일어날 일도 없다. 이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최선이란 곧 완벽, 완벽이란 곧 최고를 의미합니다.”

1.5.

m월 n+k일, 디스토피아에 대한 생각을 멈추기가 어렵다.

0.6.

자료를 미리 봐두면 잔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 정도는 수험생 시절, 수험생 최선 가이드라인에서 배웠던 것이다. 미친 아이에게서 어떻게든 자료를 구해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것을 계속해서 읽고 있다.

일기는 꽤 오래 전의 것이었다. 아마도 주인은 어느 학자였을 것이다. 그는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1.6.

요즘 쓰고 있는 논문은 x시기의 출판물들이 세상의 멸망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며 재미있다.

세상이 결국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결말이 있는가 하면 세상은 결국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결말도 있다. 아예 세상이 사라지는 결말도 있다. 이 중에서도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대한 상상이 가장 재밌다. 사람마다 각자 그리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이 사라져버린다는 결말을 제외하면, 과연 이들이 진단하는 세상의 결론은 다시 전복될 것인가? 전복될 수 있을 것인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다시 또 해체될 것이라고 믿는다.

0.7.

이제는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없다. 문학도 없다. 문학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문학이 없어진 이유는 간단했다.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마 일기의 주인이 요즘 세상을 겪게 되면 실망할 것이다.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전부 경험되어버렸고, 남은 미개척지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복이라는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해체되지도 않을 것이다.

1.7.

사실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다. 애초에 갈등이 무엇이고 평화로운 건 무엇인가? 뒤집자면, 비틀자면, 갈등이 없을 만큼 강력한 통제가 사회에 가해진다는 게 아닌가? 갈등이 없는 것이 평화의 상태라면, 그 통제를 가하는 자와 통제를 받는 자 사이의 위계는 과연 평화라는 이름 아래에 포섭될 수 있는가?

혼란스럽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마저도 이런 논리로 마구 해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를 두렵게 한다. 오늘도 비척거리며, 비틀거리며 외줄타기를 한다. 비척거리다.

0.8.

일기장의 주인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들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질문들은 전혀 최선의 질문이 아니었다. 답을 도출할 수 없는 질문들이 태반이었다. 애초에 그는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다.

답을 도출할 수 없는 질문은, 답을 원하지도 않고 하는 질문은 최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쓸모없는 질문들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이 질문도 최선은 아닐 것이다.

1.8.

m+a월 n+b일, 최근에 본 가장 재밌는 디스토피아 문학이 있다. 그것에서 그리는 디스토피아는 공명정대한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 시스템에 의해 법과 규칙이 만들어지고 정의(正義)가 정의(定義)된다.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받아들인다. 시스템은 인간과는 다르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명정대하게 모든 일을 선택하고 실행한다.

0.9.

멀미가 났다. 버스 안에서 속을 게워내기 전에 빨리 버스에서 내렸다. 이게 최선이었나? 버스에서 멀미를 하게 되면 도중에 내리라는 내용은 어느 최선 가이드라인에 적혀있었을까? 어린이 최선 가이드라인? 청소년 최선 가이드라인? 탑승자 최선 가이드라인? 모른다. 기억해내지 못한다.

어쨌든 수험생 최선 가이드라인은 현재 나이에 맞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팔팔한 청소년이 버스 안에서 책을 읽는 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직장인 최선 가이드라인만을 참고해야겠다.

혹은 이 멀미가 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일기가 던지는 수많은, 답 없는 질문들 때문일지도. 또 불완전한 추측을 했다. 주치의는 분명 비정상 판정을 내리고 알약과 반신욕, 숙면을 권할 것이다. 비정상 판정을 여러 번 받으면 아마 일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 때의 최선은 격리 보호가 될지도 모른다. 흠칫 소름이 돋았다가 다시 멀쩡하게 돌아왔다. 대신 구토를 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최선을 수행하고 있는가?”

1.9.

그러나 이따금 시스템이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시스템이 판단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행동을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스스로 행동한다. 시스템 이탈자가 묻는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가?”

$0+1=1+0=1$.

무언가 균열이 나는 소리가 어디에선가 들려왔다. 찌저적.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0의 세계와 1의 세계가 움직인다. 움직여서 겹치려고 한다.

무제

형형

폭풍우가 치는 밤 창문 밖 넘어 들려오는 양들의 침묵.
비탄을 총에 장전하는 한 사내
총구가 향하는 곳은 그 무엇도 없는 땅 위에서 보이는 오아시스.
사내는 안다. 그것이 신기루임을 방아쇠를 당기면 신기루는 사라진다.
대신 무지개를 쫓는 어린아이도 사라지겠지.
이 순간, 세상은 다시 한 번 고요해진다.
들리는 건 사내의 한 박자 빠른 숨소리뿐.
결국 그는 총구를 자신의 머리로 향하게 한다.
탕. 비탄이 그의 머리에 박힌다.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회색빛의 빛바랜 풍경들.
오늘도 사내는 신기루를 죽이지 못 한다.

안개

뿌연

걸어내려 해도 걸어지지 않는 안개, 그 속에서 헤매이는 나를 발견할 때면 가슴이 먹먹하기 보단 바보 같아 보인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속으로 곱씹으면 걸힐 것도 같은 뿌연 안개는 계속해서 내 앞을 서성이고 있다.

안개 속을 걷고, 뛰고, 때론 기어 다니다보면 무언가와 마주한다.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하는, 이미 체념해버리고 안개 속에 살아가는, 마지막 숨을 서서히 멈춰가는 그 누군가. 무엇이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안개 속에서는 고민조차 멈춰버린다. 언제쯤에야 열게 흩어질지 모르는 이 안에서, 나는 지금도 헤매인다.

이상

꿈꾸다. 찾다. 이루다.

이렇게만 된다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내 앞에 펼쳐지는 안개 속에서 헤맬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수백, 수천 가지 이유가 뭉쳐 뿌연 안개가 밀려온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을 나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길을 가린다.

예전에는 무수히 많았던 것들이 지금은 사라져간다. 질게 흩뿌려진 안개를 걷어주던 이상은 하나, 둘 그 빛이 바래진다. 어느 순간부터 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두가 그러하다. 서로 다른 색의 빛이 수놓은 마음이 아닌 뿌연 안개빛으로 변해버려 서서히 하나가 된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없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흐드러지게 핀 꽃처럼, 거리를 비추는 달처럼. 듣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들. 한 번 더 눈길이 가는 것들. 본래 이상도 그러한 존재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길을 찾지 못했을 뿐 마음 한 구석 어느 곳에 묻혀있다. 바래진 기억 속에서 꿈틀대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헤매는 길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잊혀진, 바래진 그리고 숨겨왔던 기억들. 원래는 나였던 기억들이 나로부터 멀어진 그 날들을 떠올린다. 슬프다, 아프다, 씁쓸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 때가 그리워진다.

안개는 지금도 내 앞을 서성인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눈길을 준다. 그리고 기억한다. 나였던 것들, 나이고 싶은 것들, 나인 것들. 하나씩 되짚어가며 나를 찾아간다.

영원과 선구자

선셋

새벽녘 비가 등으로 들쳤다. 차갑고, 축축했고, 여름 냄새가 났다. 네 살 냄새도 났다. 고개를 잠깐 비끼면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냄새였다. 너는 말이 없는 채로 몸을 돌렸다. 딱딱딱한 손바닥이 뺨에 닿았다. 네 왼손이 내 오른뺨 위로 올려졌다. 너는 왼손잡이고, 나는 늘 오른뺨을 비워두었다. 그래서 비로소 네 체온이 닿았을 때 나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저 영원.....이라는 말을 떠올렸다.영원.....은, 이때 것 느껴보지 못해 비유를 할 말을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말이었다. 아마도 추측컨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양수 안이라거나 아니면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처음으로 달빛을 맞았을 때의 느낌이 아닐까. 나는 러브라는 책 제목을 생각한다. 그곳에 수록된 단편 중 어디론가 팔려 떠돌아다니는 집시 여자아이의 생애가 기억이 났다. 그 애는 태어나서 처음 받은 호의를 간직해두고는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꺼내어 건넸다. 처음 타인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던 한쪽 손을 제 뺨에 가만히 대어보는 일이었다. 주인집 남자에게 벨트로 맞은 후에도 그 애는 한쪽 손을 자기 뺨에 대며 잠들었다.

어쨌든 영원은 거짓말을 할 테다. 양수는 곧 터질 것이고 달빛은 진공만큼 공허한 것일 거다. 그리고 그 책에서 아이는, 시간이 지나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지만 결국 내쳐지고 말았다. 양수가 터진 채로 거리에 주저앉은 아이의 모습이 묘사되며 이야기는 끝난다. 나는 거짓말이 들통 나지 않기를 바랐다. 간절히 바랐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너는 놀라 되물었다. 그래서 이대로 죽어도 괜찮을 거 같다고... 다시 말했다. 너는 잠에 반쯤 잠긴 목소리로 안된다고, 같이 살자고 했다. 나는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웃었다. 알았어, 하고 너를 끌어안았다.

영원이라는 것. 어딘가의 울타리에 갇혀 키워지는 것과 자유롭게 다니면서 배를 굶는 것 둘 다 역시 결핍된 삶이다. 결핍은 전 생애를 따라다닌다. 그림자나 죽음처럼. 그래서 영원은 불완전하고 이 문장 그대로 모순적이다. 나는 영원에게 말을 건다. 예컨대, 영원은 나의 이상이다. 영원에게 사랑한다고,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지만 영원은 내 말을 어디 골짜기로 넘겨 듣는다. 내 말들은 조각 나 투명해졌다.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슬퍼진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생애에 대해서 여상스럽게 슬픔을 느낀다. 영원은 너무 멀고, 네게도 그럴 것이다. 눈물이 터지고, 눈물이 적신 부분은 타들어간다. 영원이 헤집어 놓은 곳은 고통스럽기 짝이 없다. 고통은 기력을 없애고 우리는 모두 바닥에 양수가 터진 채 주저앉아 기어 다닐 뿐이다. 너는 나와 손을 잡고 기어 다니지 않을래, 하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알았다고 했다. 나는 온갖 기어 다니는 것들 때문에 슬퍼지고, 그래서 글을 쓴다.

쓴다는 것....., 대체 무엇이길래 한 자 한 자 힘겹고 실망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나는 영원.....이라 쓰고 울고, 이상.....이라 쓰고 분노한다.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함께 분노하는 글들을 쓴다. 이 시간만큼은 나는 뭐라도 된 것 같다. 이 시간만큼은 나는 너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연민한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영원.....이상과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글을 쓰는 나는 가끔 거짓말이 들통 나기 전에 죽고 싶어하지만, 가끔 울타리가 지어지기 전에 도망치고 싶어하지만 그래도, 두발로 서는 연습을 한다. 도망치지 않으려는, 죽지 않으려는 연습을 한다. 두발로 우뚝 서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으면 언젠가. 언젠가 나도 선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를 찬미하고 지지하는 글을 써 그에게 구원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그대로 나 스스로 선구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생애에 슬퍼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갑자기 벽차고 힘겨워 글을 잊지 못했다. 나는 한 자 한 자 힘겹고 실망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라리 다행이다. 나는 이제 오른뺨에 손을 대어보고 영원.....을 생각하고, 비로소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J에게.

유승희

J. 안녕. 오랜만이야. 너의 세계는 안녕하니? 여전히 오늘도 나는 말과 글이 가진 힘을 믿어. 말하고 씀으로써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분명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홀로 주저앉아 너를 생각하며 글을 쓰고 있을 때면 자주 문장이 길을 잃었어. 타인을 위한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지만 기실 그 모든 글은 나를 향해 있기 때문이었지. 그러한 모순적인 행위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지만 쉽게 답은 나오지 않네. 모순적인 것만이 나를 구성하는 전부인 것 같아. 나쁜진 않아.

J. 어느 날, 너는 내게 너의 이상이 무엇이나 물었지. 나의 이상은 명료해지는 것이었어. 내가 명료해지고 이 사회가 명료해져서 각자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세계. 그 세계에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지. 불명료한 것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세계는 불명료하지도 않잖아.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지. 나약한 내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가능하기에 꿈꿨어. 너와 내가 존재하는 이 세계가 조금은 아름답기를 바랐지.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기를. 그래서 똑똑해지고 싶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을 때마다 해답을 알려주고 싶었으니까. 그러한 욕망들이 나를 한층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할 수가 없어. 똑똑해지면 정말 나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을까? 나의 세계가 깨지고 지평이 확대될수록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줄어들었지. 같은 곳을 맴돌고만 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해. 이 참담하고 비참한 세계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정녕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사실 이 세계는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천박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건 그런 생각을 할 때라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세계를 어둡게 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는 자각은 나를 심연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지. 나를 인정하는 만큼 타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J. 나의 세계는 늘 나와 타인으로 구성되어있어.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의 세계에서 그들은 서로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다투지. 바보같은 나는 그 사이에서 두 손을 놓고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는 없어.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과정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온전히 나만 존재하는 세계, 온전히 타인만 존재하는 세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부끄럽지만 타인을 통해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를 꿈꿨어. 타인에게 온전히 나를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개인의 세계. 그리고 그 모든 게 용인되는 사람들의 세계. 너무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자주 무기력해하면서도 느껴지는 아름다움 앞에 경이로움을 맞이해.

나를 유지하는데 자꾸만 타인의 시선에 갇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말이야.

J. 슬프지 않을 수 없는 이 세계에서 네가 조금은 덜 슬프길 바라.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부디 슬픔 앞에서 기꺼이 슬퍼하자.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슬픔을 내포하고 있잖니. 슬픈 것은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은 슬픈 것. 아름다웠거나 아름다거나 아름다워질 것들은 모두 종내에 슬픔으로 귀결되니까. 너의 눈을 보고 있으면 자주 무릎을 꿇고 영영 울고 싶어지고 말았던 것도 같은 이유겠지. 네게 하는 이 모든 말들은 곧 나에게 하는 말이야. 우리는 서로를 결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 서로를 향하는 말이 얼마나 오랜 시간 유효할 지도 알지 못한 채 순간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니까. 영원한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가능한 것만을 꿈꾼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무미건조할까. 지금보다도 훨씬 재미없을 거야. 아닌가. 훨씬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잘 모르겠어.

J. 전하지 못한 편지와 내뱉지 못한 말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선언되지 못한 것들은 가치가 없는 걸까. 실현되지 않으면, 이 세계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건 없는 걸까. 마음 속 어딘가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나는 여전히 이름에 J가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애뜻함을 느껴. 그러니까 앞으로의 너의 세계가 더욱 더 안녕하기를 바라. 곧 보자.

이상, 그 설레이는 말

시마

이상(以上). 아,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이다.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 안에서 무심하게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마저 언제나 이걸 가슴속에 묻어두고 다닌다. 아마존에서 새를 사냥하는 원주민부터, 도시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까지 각자의 색깔에 따라 이상을 품고 살아간다. 누구나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 이상은 가만히 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만히 두지 못한다. 사랑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카톡을 보내보라고 조르고,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노력하라고 채찍질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이 현실화 되는걸 상상하며 묵묵히 이상의 명령을 따를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고통을 감수하면서 다가올 기대감에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상이란 것은 밤하늘에 밝게 떠있는 달인 듯싶다. 꽤나 자주 보이는 달은 딱하니 하늘에 지분을 차지하며 홀로 아름답게 빛나지만, 때론 나태라는 구름에 가리기도 하고, 도저히 닿고 싶어도 닿을 엄두가 안 보인다. 가만히 달을 보며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나도 달에 닿고 싶어 하루는 얼마나 달려야 저 밝은 달 근처까지 갈수가 있을까 하곤 자전거를 타고 지칠 때까지 달려보았지만 달은 배려심 따위는 없이 지평선 아래로 갈 길을 갈뿐이었다. 나의 이상도 마찬가지이다. 항상 배려심이 깊고 인문학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는 인문학 서적을 읽어보기도 하고 배려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하지만 본인의 나태함과 이해력부족으로 인문학 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나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상은 어쩌면 이를 수 없어 더욱더 아름다워 보일지도 모르는 지도 모르겠다. 온전히 꿈을 이룬 스스로를 상상하면 비현실적이지만 그걸 상상하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즐거움이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사 중에서 '삶은 열매보다 꽃'이라는 가사가 있다. 매드클라운이라는 래퍼의 노래에 있는 가사인데 처음 이 가사를 들었을 때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이 크게 와닿았다. 사과를 바라고 키우는 사과나무지만, 사과와 품질과 상관없이 그 과정 또한 아름답다는 것. 어쩌면 완벽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상 아닐까?

이상 理想

김한송

[명사]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어른들은 우리에게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라고 한다. 그것의 청춘의 특권이며 *의무*라며. 하지만 나는 나의 이상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내 머리 속에 들어만 있을 뿐이다. 이쯤에서 나에게 드는 의문은 '정말 이상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이다. 내 이상을 향해 뛰어갈 수 없다면, 이상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의 입시, 취업, 승진, 결혼, 육아에 치여 이상을 꿈꾸는 것 더 나아가 이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힘든 요즘이다.

나의 이상은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이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회이다.

문학을 좋아하든 비문학을 좋아하든 그 어떠한 것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
성적 취향과 취향에 대해 존중 받는 사회.
성별이 무엇이든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 차별 받지 않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고 소통이 잘되는 사회.

한 청년의 이상(異常)과 이상(理想)

이승현

하루 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 유리 안의 사람이 이다지도 낯선 것이 참 지독히도 남이 아니오? 하며 웃는데 아니 이 사람도 나를 보며 깔깔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인 것만 같아 말을 걸어보려는데 참 이 사람이 입술만 움찔움찔 하여 눈썹을 찡그려 보다가 문득 이 사람에게조차 집중해 무엇을 알아내야 하나 싶어 허무해져 뒤를 돌았습니다. 다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당신에게 하는 얘깁니다. 언제 대답을 해주렵니까.

2부

나를 말하다

나는 어스름 가운데에 있어
모든 사람은 윤곽이고
모든 말은 물푸레야
이 세계는 두시간 남짓한
애상으로 흘러내려

끝이라서 애달퍼
죽어나는 몸부림으로
마지막까지 내 비명을 들어줘
모든 것을 갈라
네 동공에 물들여 놓을 테니

이곳에서 나는 가득해
네 울음으로 울연히 넘쳐서
하나씩
노란 영혼을 바다로 던져
함께 타넘어가라고

그렇게 나는 이 반대편 세상에서
새로운 아침이 될게
네 황혼을 씹어삼켜서
태초에 찾아온 종말처럼
터뜨려줄게

결핍

김규규

내 심장에는
검고
검은
깊고
깊은
구멍이가
하나 있다

그 안을 당신으로 채워 넣고 싶었다
그러나

당신 심장에도
내 것과
똑같이
생긴
검고
깊은
그것이 있었다

그 안을 당신으로 채울 수가 없었다

그대

시마

그저 스쳐가는 들풀인줄 알았는데
내내 향기로운 한 송이 꽃이었구나.

그해 유월

유승희

그해 유월. 까치는 날았고 우리는 걸었지. 천 년 전과 다르지 않을 성벽은 나무 밑에 숨어들었고 너는 풀을 당기며 아이처럼 신나했어. 자꾸만 시간이 길을 잃는 동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방금 지나간 사람들마저 하나의 그림 같다고 말하며 깔깔 웃었지. 너는 마음만 먹으면 이 성벽쯤은 가뿐히 넘을 수 있다고도 말했지. 그 모든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을 뿐이었어. 하늘에서 내려가야만 하는 너의 집은 온종일 흐릿했고 그 속에서 나의 시간은 은폐되고 말았어. 앞드려서 하나의 시를 읽다가도 문득 멈춰서 시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 따위를 고민했지만 사실 답은 크게 중요치 않았지. 네가 있었으니까. 너는 울 듯한 눈으로 나의 글을 묶어주겠다고 이야기했고 나는 좀 더 아름다운 글을 쓸 수는 없는 걸까, 진심으로 되뇌었어.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안겨주고 싶어졌지.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의 시간에 속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의 시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해 유월. 나는 조금 울었고 너의 서울은 외롭지 않게 되었지, 조금은.

달힌 글, 다친 글

히페이퍼

[joy를 생각하며]

너는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만난 반가운 사람 같았다. 기대 없이 만난 자리에서 너는 밝았고, 닳고 싶었다. 뻘한 만남이었지만 사랑에 빠질 뻘한 만남. 넌 멜로영화를 애정 했고, 가족 얘기에 예민했다. 웃음이 많았고, 울음이 잦았다. 나쁘지 않았다. 너가 울면 내가 달래주면 됐고, 짜증내면 참아주면 됐다. 나한테 사랑은 그랬다. 좋은 것만 함께하고 최선의 것만 나누고 싶은 것. 나한테 연애는 그랬고, 너는 그랬다.

달이 밝은 날이면 하늘을 보라고 전화했고, 별이 보이지 않는 날이면 아쉽다는 핑계로 너를 만나러 갔다. 별이 보이지 않으면, 너를 보면 됐으니까. 나와 함께 걷는 너를 보며 결혼을 한다면 너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날 저녁 너에게 이런 말을 전했더니 너는 웃으며 기다리겠다고 말하더라. 봄이 오니 너는 완전한 봄과 같았고, 겨울이 오니 다소곳하게 쌓인 눈송이와 같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는 사계절을 담고 있었고, 닳아있었다. 너에게 단점이라고 너가 정말 미치게 예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뿐이었는데.

다툼은 잦아졌고, 다시 생각해보니 너는 차디찬 겨울을 닳은 거 같더라. 툭 치면 울던 너라서 다가가기 싫어졌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너라서 대화를 이어가기 귀찮아졌다. 너를 보는 대신, 별을 보는 일이 좋아졌고, 너와 마시는 커피 대신친구들과 먹는 술이 좋아졌다. 자전거를 왜 배우지 못했냐고 묻던 질문에 기분나빠하던 너를 나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됐다. 나의 가족들을 좋아하지 못하는 너를 사랑하기 힘들어졌다. 내 길을 걷다보니, 너라는 짐이 무거워졌다. 너를 사랑했지만, 책임지고 싶지 않아졌다. 나는 그랬다. 너가 중요하지 않아졌다.

[사랑하는 min에게]

너의 끊임 없이 끊이지 않는 호의에 나는 하루 종일 불안했었던 거 같아. 운명을 믿는 나지만, 그 날 만큼은 신중하고 싶었거든. 나를 떠나던 아빠는 말이 없었고, 가지 말라고 붙잡았던 할머니는 날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유년기는 그랬고, 행복했다 믿고 싶지만 조금은 불행했던 거 같아. 처음 만난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부르던 순간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에서 넌, 나에게 완벽했어. 따뜻했고, 겸손했지. 내 눈을 보고 너가 대화를 이어 갈 때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과분하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 같아. 자전거를 왜 배우지 못했냐는 너의 질문에 티내고 싶지 않았는데, 내 표정을 보고 너는 알았을까? 유치원 여름방학에 아빠가 가져왔던 자전거는 노란색이었고, 예뻐던 거 같아. 정말 예쁜 자전거였는데, 아빠가 바꿨는지, 내가 게을렀는지, 아니 시간이 급했는지도 모르지. 자전거는 버려졌고, 나만 남겨졌어. 그래서

나는 아직도 자전거 얘기가 싫어.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이 옳을 줄 알았는데 왜 불행해지는 걸까. 좋은 날씨면 완전한 나 같다는 당신은 어디 갔을까. 다시 버려진 생각을 하니 슬퍼지다가도 바다를 닦았던 너라서 괜찮을 거 같아. 나는 너라는 바다에서 여전히 헤엄치고 있지만, 아직은 날이 더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라고 해둘게. 바람이 조금 차가워지고, 사람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때쯤이면 나올 수 있을 거야. 겨울에 수영이라니, 너무 춥잖아.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건, 우리가 여전해서가 아니라 여전하지 못해서고, 내가 너를 생각하는 건 너에게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야. 답장이 없는 너에게 오늘은 뭐라고 보낼까 생각해 봤는데,

‘별이 보이지 않아. 나 보러 올래?’

당신과 바다

김규규

너는 파도처럼 왔다가
너는 파도처럼 갔다
네가 때리고 간 내가 아프다
눈물이 툭 떨어졌다
새하얀 거품이 모래사장 위로 일었다

도플갱어

시마

눈을 뜨면 떠오르기에
너는 해를 닮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너는 달을 닮은 사람이구나.

봄이니까

권혜린

누군가를 미워하며 보내기엔 너무나도 예쁜 계절
따스한 바람 스치면 왈칵 고이는 눈물 참지 않고
"보고 싶었다." 말하며 당신에게 와락 안기고파.

손에 쥘 모래마냥 가장 간직하고 싶을 때 내 곁에서 떠나
하지만 앞으로 쥐어볼 수 있는 다른 모래 알갱이가,
다른 봄이 있는걸 알기에 아쉬움 끝에서도 보낼 수 있어.

가장 추운 계절 후에 돌아오는 봄
봄은 내 모든 모습을 포용해준다.
웃어도 "봄이니까.", 눈물지어도 "봄이니까."

<설명>

장르: 시

내용 설명: 20살 때 봄의 감성에 취해 쓴 시다. 좋은 일은 더 좋게 슬픈 일은 더 슬프게 느끼게 만드는 봄에 대해 써보았다.

비 오는 밤, 너에게

권혜린

오늘은 비가 와서 별이 안 보여
별이 보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어! 별 안 보이네" 하니까
다들 놀라더라. 나에게 별은 늘 보였거든

달이 건물에 가려지는 일도 없어서
해 지고 집에 가는 길
매일 달이 졸졸 따라왔어.
생각난 참에 달이 보이도록 불 꺼야겠다.

내 방 불은 한 번에 탁 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어두워지다가
알게 모르게 싹 꺼지거든
어둠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느낌이야
사람 사이도 이래야하는데.

아, 비 안 오는 날에
별 보러 와.
통화가 길어졌네
내일도 연락하자
잘 자고 예쁜 꿈 꾸.

<설명>

장르: 시

내용 설명: 소중한 사람과 나눴던 대화에 영감을 받아 쓴 시다. 별을 보러 오라는 말은 사실 나를 보러 오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좋아한다는 말은 적혀있지 않지만, 작은 일상을 공유하는 말투에서 마음이 드러난다. 당신에게 날 알리고 싶고, 날 보러 오면 좋겠다는 마음 말이다.

안경

이승현

나는 너를 보기 위해 둥그런 유리알을 끼고.

그 전엔 그저 하늘이란 것이 내 위에 있구나 하다가
새삼 아득하다.

저만치 네가 선명하여 아찔한 순간
둥그런 것이 저 손가락의 굳은 살만을 비춘다.
저것은 너인가 아닌가.
떼어내면 그만인 것.
그러나 떼어내면 다시 자라날 것.

그렇다면 나는 보다 멀게 너를 보리라.
둥그런 것을 치우고 흐릿한 형상이
드디어 너다. 이제야 반가이

문득, 너의 눈알이 둥그렇다.

안녕

이승현

너와 나는 서로 만나 각자의 혼잣말을 하고
혼잣말이라도 순서는 번갈아 하는 예의를 지키며,
상대가 말을 할 때엔 저 액자의 얼룩을 보다가
몸이 찌뿌둥해지면 고개를 끄덕이는 운동을 하고
눈이란 물이 고일 때쯤에야 그렇게까지 힘들었냐며
보게 되는 것으로, 껌이 달라붙어야만 보는 신발 밑창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의 순서에 중얼거릴라 치면,
그는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는 양 말하고
나는 또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다.

창 밖의 날씨가 계속 바뀌는 것이 신기하다.
그러나 오늘의 비는 아무도 적시지 못했다.

축제1

유승희

내 손목을 잡아끌던 그때, 수많은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린 우리. 너의 등, 다리, 쓸쓸한 뒷모습. 멈춰 서 같은 방향을 바라본 순간. 머리 위로 흐르는 노래와 함성, 찬란한 빛. 발에 밟히는 이미 죽어버린 잔디, 그리고 죽어버린 시간. 희미한 기억 속 선명한 너.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영겁의 시간에 하릴없이 그리고 기꺼이 포박되고야 마는 나.

春雨落日 (춘우낙일)
(봄비 떨어지는 날)

형형

春雨秋海 徐落日
춘우추해 서낙일
月光焦影 來手搖
월광초영 내수요
好憶好遇 去未拏
호억호우 거미나
來死生膳 愔目紮
내사생선 음목찰

봄비 가을바다에 서서히 떨어지는 날
달빛에 그을린 그림자 어서오라고 손을 흔드는구나
좋은 추억 좋은 만남이 가지말라고 나를 붙잡지만
다가오는 죽음도 삶이 준 선물이기에 조용히 두 눈을 감는구나

3부

문학을 말하다

무용의 쓸모 #01. 시작합니다

일시 : 16. 07. 06 (수) PM 6:00 ~

장소 : 숙명여대 카페 핀벨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들의 이상(理想)을 파는 '이상한 시장'에 속한 「무용의 쓸모」입니다. 무용의 쓸모는 현대사회에서 문학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심지어 문학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문학에게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뭉치게 된 대학생들의 모임입니다.

Q1. 우리 팀의 이름은 "무용의 쓸모"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무용의 쓸모"라는 표현의 의미는? 혹은 표현을 듣고 느낀 점은?

희페이퍼

: 상반되는 단어들의 조합이 좋았다

규규

: 좋은 이름. 무슨 의미냐는 질문은 조금 어렵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현 시대 속에서는 교환가치를 지녀야만 쓸모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쓸모도 그 기준에서 평가된다. 아직은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쓸모없는 것이 가진 소중함이 존재한다.

빵떡

: 똑똑한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분명 존재 이유가 있다. 우리가 나쁜 경험으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우는 것처럼 쓸모없게 여겨지는 것들도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지니

: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 걱정이 되었다. 또다시 쓸모없는 것으로 비취지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시를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시는 전혀 나에게 무용하지 않다. 그렇게밖에 표현될 수 없는 것을 쓰고 읽음으로써 살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용하지 않은 것이다.

핑핑

: 김현의 비평문을 읽다가 떠오른 팀명이다. 쓸모의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해 자주 생각해본다. 본래 문학은 모순적인 것인 것이며 모순적인 것은 진리와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쓸모없게만 여겨지는 문학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쓸모 있는 것들 중 하나이다. 같이 그 쓸모를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선셋

: 무용의 쓸모라는 말이 현재 우리나라의 문학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 물론 문학은 가치 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이다.

네모

: '유용'하다고 느껴지는 자기계발서가 제일 잘 팔리거나 비문학 서적들의 판매량이 문학 서적들보다 더 많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문학은 무용지물하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문학의 필요성/유용성을 팀 자체에서도 알아가고, 사람들에게 게도 알리자는 의미에서 무용의 쓸모라는 이름을 팀명으로 한 것 같다.

형형

: 처음 보았을 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춤추는 무용인 줄 알았다. 그래서 무언가 활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하는 신선한 모임인가 했는데 한자를 보고 나니 그 뜻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어 내 자신이 한심했다.

뿌연

: 예쁜 쓰레기, 쓸모없지만 쓸모가 있다는 중의적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물일 수 있다는 것 같다. 숨 쉴 때는 몰랐던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보인다.

시마

: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자본으로 환원할 수 없어도 문학은 꽤나 쓸모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제목인걸 알 것 같다. 아쉬운 것은 좀 더 신선하고 젊은 이름이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Q2. 그렇다면 문학의 쓸모는 무엇이며 문학은 무엇일까요? 문학만이 가지는 가치는?

핑핑

: 더 나은 개인과 사회를 '열어 밝히는' 데 쓸모가 있다. 한 개인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이 모이면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빵떡

: 무언가가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이다. 나에게서는 별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서는 소중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문학의 가치이며 만에 하나 쓸모가 없었다면 문학이 지금까지 살아남지는 못했을 것이다.

규규

: 인문학 안에 문학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은 현실의 당연한 것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하고, 왜 그런가에 대해 사유하면서 현실을 부순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에 포함되어 있는 문학의 역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현실에 균열을 내고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것들을 들리게 한다.

희페이퍼

: 작가들도, 책도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문학의 쓸모이다.

지니

: 문학의 목표는 일상의 지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시만 보더라도, 시의 지각을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지 않나? 이처럼 지금까지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것이 문학이다. 시적인 것들도 그렇다. 문학으로써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선셋

: 고등학교 때 입시 경쟁을 치르면서 정말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다. 독서실에서 문태준의 '어느 날 내가 이곳에서 가을강처럼'을 읽고 울었다. 많이 힘들었고 많이 위로 받았다. 이게 문학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네모

: 왜 문학은 없어서는 안 될까? 내가 생각하기에 문학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감능력을 통해 사람들은 더욱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 문학의 필요성은 사람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특과 실에 대해 끊임없이 계산하고 생각해야할 때 문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는 새로운 모티프가 되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는 계속 생각하던 것을 잠시 잊고 휴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형형

: 문학의 범주를 넓게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단어의 조합들, 문장들의 나열 등 그 수많은 것들이 문학이라 생각한다. 어려우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특성이 문학의 쓸모이며 문학이며 가치라고 생각한다.

뿌연

: 문학은 개인의 삶에 색을 입혀준다. 그리고 그것을 조화롭게 꾸며준다.

시마

: 작가는 스스로 의미 있는 경험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글로 활자화해서 남기고 그걸 읽는 독자는 그 글을 읽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체험하고 가치에 동조한다. 이 과정만 본다면 해도 문학은 '쓸모'가 있다.

#02.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과 신경숙 「외딴방」을 읽고

일시 : 16. 07. 12 (화) PM 2:00 ~ 5:00

장소 : 혜화 인문학서점 풀무질

오늘은 두 번째 모임입니다. 오늘의 모임에서는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에서 발췌한 1장에서부터 4장과 신경숙 「외딴방」을 읽고 온 뒤 각각의 글에 대한 소감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자유롭게 글을 읽고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Q1. 먼저 김현의 비평문에 대한 소감을 나눠봅시다.

규규

: 비평문 재밌게 읽었다. 문학은 쓸모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억압하지 않는다는 말이 좋았다. 4장 '무엇이 지금 문제 되고 있는가가 가장 어려웠다.

빵떡

: 고등학교 때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문학에서 정답을 규정하려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현재의 문학적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좋았다.

선셋

: 모든 유용한 건 사람을 억압하고 문학은 그렇지 않는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라는 소리에 딱 책만 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웃음) 소화가 잘 되는 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핑핑

: 줄곧 어렵지만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형

: 현대에서 위치하는 문학의 자리에 대해 다양한 시선으로 비평을 해준 것 같다. 자세히 설명하긴 힘들지만,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비평문이었다.

뿌연

: 내용이 어려웠다. 문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리고 싶어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보인다. 문학의 쓸모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지니

: 문학은 억압하지 않지만 억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읽고 문학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평소에도 불편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정작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문학작품을 쉽게 감상하거나 받아들이곤 했던 것 같다.

네모

: 작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2016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희페이퍼

: 문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된 비평문이었다. 온전히 이해하려면 오래 걸릴 거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무용한 것의 쓸모라는 건 매력적이다.

Q2.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문학의 쓸모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비평을 읽고 난 후에 생각에 변화가 생겼나요? 김현의 비평을 읽고 난 뒤,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의 쓸모란 무엇일까요? 또, 문학이 권력의 수단에서 대항의 수단으로 변화하면서 문학의 쓸모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다는 김현의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규규

: 내가 두루뭉술하게 하고 싶었던 말이 김현의 비평을 읽으면서 정리가 되었다. 과거에는 권력자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 문학이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변화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꼭 김현의 이야기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하튼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학이 쓸모없어진 역사에 대해 알게 되어서 재밌었다.

빵떡

: 문학의 쓸모에 대한 생각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리가 되었다. 친구랑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다. 친구뿐만 아니라 문학이 쓸모가 없어서 쓸모가 있다는 말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편 문학이 쓸모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은 못하겠다. 문학의 가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선셋

: 단지 권력 구조의 이동만으로 문학의 쓸모를 설명하는 것보다 무언가 분명 더 있

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래도 김현의 의견에 동의한다. 문학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썼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율성을 가지게 된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문학이 한층 더 나아졌다는 느낌이 든다. 문학의 쓸모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된다. 억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다.

시마

: 원래 문학이 권력자의 도구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좀 놀랐다. 무용의 쓸모의 원형이 여기서 왔는가 생각했다.

빵떡

: 쓸모의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문학이 현실과 떨어지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 같다. 문학의 세계에 입성하면서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멀어질 수 있는데, 종내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하니까 결국엔 쓸모없는 걸로 여겨지는 게 아닐까.

규규

: 현대의 우리에게는 도피할 수단이 무척이나 많이 생겼다. 현실도피에 굳이 머리 아픈 책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문학이 더 무용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선셋

: 최근, 김사과의 산문집을 읽고 있는데 작가도 자본주의에 편승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작가도 대중이랑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지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작가들은 단순히 종이책을 넘어서 뭔가 다른 것도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규규의 말에 덧붙이자면, 힘들었을 때, 게임만 했다고 생각해보면 위로를 받았을 것 같지 않다. 시간만 죽였을 듯.

형형

: 사실 이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다. 문학은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요소다. 문학이 대항의 수단으로 변화함에 있어 회의감이 생겼다는 김현 작가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문학의 효용가치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고 본다. 예전에는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현대의 문학은 대항의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이다.

더욱이, 문학을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는 김현 작가의 의견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이다.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문학 자체는 작가 개인의 삶이라고 보고 수단이라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뿌연

: 예전부터 문학 같은 것들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혹은 권력의 정반대에서 저항을 한다고 생각하였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비평문을 읽고 좀 더 구체화 된 것 같다.

지니

: 문학의 쓸모에 대한 생각은 변화가 없다. 김현의 이야기에 내가 정확히 동의하는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한다. 문학이 과거와 다르게 쓰이고 과거와 다르게 취급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변화했으니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나친 상업화나 대중화 혹은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문학과 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벗어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희폐이퍼

: 생각의 변화라는 건 크게 없었으나, 내 생각이 명확해졌다는 느낌은 받았다. 문학은 여전히 쓸모 있고, 필요하지만 소외되고 있다는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 김현의 이야기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사실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내가 긍정하고 또 어떤 부분에 부정하는지는 명확히 설명해내기가 어렵다.

Q3. 다들 신경숙의 「외딴방」은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내면의 성찰을 다룬 작품으로 소설 외딴방을 선정해보았는데요. 소설 외딴방은 신경숙 작가가 1994년 자신의 어린 시절 구로공단에서 여공 생활을 하며 학교에 다녔던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소설입니다. 그녀의 대표작인 외딴방을 읽고 난 소감을 이야기해보아요.

규규

: 되게 울컥했다. 당시의 삶이 울컥한데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워서 따듯했다.

빵떡

: 개인을 우울하게 만드는데 그게 이 소설의 가치인 것 같다. 이게 현실이다. 일상을 그대로 담아내서 가치 있는 것 같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을 무엇 하러 문학으로 담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읽으면서 새로울 수도 있고.

선셋

: 작가가 가지는 서정적인 것이 많이 느껴졌다. 우울한 이야기인데도 참 예쁘게 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쇠고랑 같은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시마

: 표현이 섬세한 것 같다. 평소에 한국 소설보다 세계문학전집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 섬세한 표현이 많아서 좋았다.

형형

: 작가가 외딴방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지 잘 나타난 것 같다. 계속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의 '우물'과 같은 내면의 성찰을 다룬 작품들이 생각났다.

지니

: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섬세한 시선이 느껴졌고 그것이 독자인 내게도 옹운 것 같다. 계속 생각하게 된다.

희페이퍼

: 우울함이 기분 나쁘지 않은 건 생각보다 신기한 일이었다. 신경숙의 외딴방이 그랬다.

Q4. 소설의 배경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70년대인데요. 그녀는 이 소설을 씀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고 치유합니다. 문학이 작가와 독자를 비롯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또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규규

: 개인에게는 치유의 과정인 것 같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글을 통해서 치유를 많이 받았다. 또한 글을 쓰면서도, 시든, 소설이든, 일기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글을 쓴다.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나 스스로를 다독인다. 문학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깨우쳐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를 이해해주고 화해시켜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빵떡

: 문학은 개인에게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것 같다. 먼저 도피가 될 수 있다. 작은 상처는 잠시 잊고 있으면 낫는 것처럼 그렇게 도피를 하게 해줄 수도 있다. 큰 상처의 경우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이든 개인에게 상처를 치유해준다.

시마

: 쓰는 사람에게는 스스로에 대해 악수를 건네고 화해하는 느낌이다. 읽는 독자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인 것 같다.

선셋

: 이번 책을 읽으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덜 다루더라도 가치가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쓰는 분도 있고, 자신의 내면적 문제에 대해 글을 쓰는 분도 있다. 그렇지만 글을 쓴 의도랑 다르게 읽히더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규규

: 선셋의 말에 동의. 그리고 외딴방이 완전히 사회적 문제를 외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외딴방에서는 70년대, 80년대 공단에서의 열악했던 상황과 그것과 맞닿아있는 사회상이 담겨있다.

형형

: 문학을 쓰는 주체인 작가는 쓰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감정들을 문자로 토해낸다. 읽는 주체인 독자는 그러한 감정들을 직접적인 말이 아닌 글자로 받으면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던 감정의 공감한다. 자신의 감정을 작가가 대신 대변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문학이 작가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며, 점차 넓어지면 사회가 '공감하는 사회'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네모

: 문학은 작가에게 개인적으로 표현 욕구를 표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 독자는 그것을 보면서 평소 표현하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련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작가는 단순히 '글 쓰는 사람'의 역할 그 이상을 하게 된다. 본인이 쓴 글에 따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바꿀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적인 여론 조성에 힘 쓸 수 있게 된다. 왜냐면 작가가 쓰는 글은 일방적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와의 공감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형형이 나보다 더 잘 표현한 것 같다.

뿌연

: 새로운 우주를 만나게 해준다. 그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조금이나마 타인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 준다. 사회에는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정서를 형성해주는 것 같다.

지니

: 작가에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식일 것이고 독자에게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생각이 부족했던 무언가를 마주하게 하는 양식일 것이다. 사회란 독자의 모임이므로 문학을 통해 각자의 나름대로 어떠한 생각을 거듭한 개인들을 얻어 시끄러워질 것이다.

히페이퍼

: 우울하면 술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울할 때 책을 읽으면 술만큼이나 좋다. 물론 이 건 내 기준이긴 하다. 신경숙의 외딴방처럼 우울함을 보여주는 책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기 보다, 치유하는 법을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문학은 개인이나 사회에게 있어서 회복할 의지와 계기가 되어준다는 생각을 했다.

#03. 한강 「소년이 온다」를 읽고

일시 : 16. 07. 14 (목) PM 2:00 ~ 5:00

장소 : 숙명여대 카페 아레카

Q1. 1980년 광주를 다룬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다들 읽어오셨나요? 먼저 간단한 소감을 나눠봅시다.

지니

: 덩덤한 문체가 한강 작가의 매력인 것 같다.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책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편인데 이 책의 경우 읽기 난해하지는 않지만 와닿는 부분이 많아 좋았다.

선셋

: 한강을 평소 좋아했는데 이 책의 경우 표지가 예쁘다는 생각만 했었다.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잊히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마주하기가 무서워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읽으면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성하게 되었다.

형형

: 읽으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그 당시를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서 와 닿지는 않았는데 저자가 낭독을 담담하게 하는 영상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그 당시의 슬픔이 느껴져 와 닿았다.

희페이퍼

: 작가 인터뷰를 봤을 때도 아, 역시 저런 사람이 작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펍펍

: 지금의 내가 되게끔 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누군가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이 책을 권한다. 마치 내가 쓴 것처럼 타인이 읽고서 고맙다고 하면 뿌듯하다. 얼마든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지하게 되었다.

네모

: 이미 콤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친숙한 책이다. 광주민주항쟁 관련 책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잘 다가온 책이다.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

뿌연

: 씁쓸하고 먹먹한 기분이 든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다는 듯이 답답한 문체로 써서 더 와닿는다.

규규

: 아팠다. 읽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다. 아직 끝까지 읽지도 못했는데 앞부분에서부터 이러면 어찌지 (웃음)

빵떡

: 현실 도피용으로 행복한 소설만 읽어온걸 반성하게 됐다. 현실을 다룬 소설을 읽으며 책을 편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마

: 사실적인 말투와 중심사건의 잔혹함으로 도서관에서 읽어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힘들었다. 군인이라는 작자들이 총칼로 자국 민간인을 학살하는 잔혹성이란.

Q2 소년이 온다는 각 장마다 다양한 인물들의 시선으로 광주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어린 새는 중학생 동호의 이야기, 2장 검은 숨은 영혼이 된 정대의 이야기, 3장 일곱 개의 뺨은 은숙의 이야기, 4장 쇠와 피는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 있다가 수감된 사람의 이야기, 5장 밤의 눈동자는 선주의 이야기, 6장 꽃 핀 쪽으로는 동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장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이유는? 각 장마다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아도 좋습니다.

펍펍

: 6장이랑 4장이 인상 깊었다. 4장은 그 고통의, 인간의 절망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끔찍하고 참담했지만 외면할 수 없었다. 6장의 경우 동호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서술되어있는데, 상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한 모든 것을 건드리는 느낌이 든다. 어머니의 마음, 죄책감과 같은 일련의 연약해서 강한 그 모든 것. 읽을 때마다 많이도 울었다.

지니

: 6장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5·18을 기억할 때 그 사건 자체만을 기억하는데 당사자들은 그 일상을 기억하고 추억한다는 게 슬펐다. 어머니가 일상과 추억을 담담하게 나열하는 게 슬펐다. 또 1장은 너는, 5장은 당신은 이라고 지칭되는데 독자에게도 관련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감명 깊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보다 너는, 이 더 이입이 잘 되는 편이다.

희폐이퍼

: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했던 과제 중에서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를 쓰는 것이 있었다. 그 때 아버지가 5.18 당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버지의 친구 분이 그 시기에 다리를 다치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고 했다. 아버지가 평소 무뚝뚝하신 편인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을 잘 못 이어가셨다. 그 날 이후로 어떤 한 사건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였지만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선셋

: 한강의 표현 방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문체가 유려한데 혼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도 신기했다. 1장 읽고 나서 "나까지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사건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강렬했다. 3장에서도 등장 인물이 5번째 뺨을 맞으려고 할 때 사유를 깊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강렬했다. 그리고 몸이 없어서 누나가 자신을 못 찾을 것 같다는 말이 너무 슬펐다.

형형

: 2장의 구성적인 면이 인상 깊었다. 영혼의 입장에서 글을 썼다는 게 독특하고 흥미로웠다.

빵떡

: 4장이 인상깊었고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라는 구절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 함께 분노했다.

뿌연

: 4장이 인상 깊었다. 5.18 당시에 겪은 아픔과 고통이 이후에도 전달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개인의 삶, 전체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이 너무 슬펐다. 아직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감정이 담담하지만 강렬하게 다가왔다.

네모

: 나는 4장이 제일 인상 깊었다. 이미 쿨에서 한번 접한 장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 민주 항쟁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결코 죽음이 무섭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더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다가왔다.

시마

: 1장은 2인칭으로 글이 써있는데, 글의 형식이 독특해서 마음에 들었고 3장에서 5번 맞는 뺨을 맞아가는 과정이 인상 깊게 느껴졌다.

Q3. 『소년이 온다』를 읽고 난 후 광주 전반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생겼나요?

지니

: 이 책을 통해서 광주가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핑핑

: 광주가 어떤 영웅들의 일대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다. 나에게 광주의 첫 이미지가 이 책이었다. 그 시기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선택 받은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나약하지만 그래서 강한 사람들.

형형

: 5·18 항쟁을 역사 시간에만 배웠었는데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만 배웠다. 하지만 그 사건을 다룬 영화나 책을 보면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건에 대해 좀 더 느끼게 된 것 같아 좋았다.

희페이퍼

: 우리는 광주를 일상에서 벗어난 이야기로 배운다. 하지만 사실 광주는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에 느꼈던 생각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선셋

: 정말 부조리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고,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잊으려 함과 동시에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알았다. 광주는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광주가 진행 중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희페이퍼

: 항쟁인 걸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죽음이었다, 라는 말을 아버지한테 들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기억하는 게 혁명이었다는 것과 민주 항쟁의 씨앗이었다는 것. 많이 어렵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형형

: 의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집회를 나가봤다. 대학생과 부딪히면서 느꼈던 게 막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사실 대학생 입장에서도 부딪혀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괴리감을 많이 느꼈다. 막을 필요가 없는 건데도 막아야

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그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많이 씁쓸했다.

펑펑

: 저번에도 이야기하지만 분노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왜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그러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괴리감을 느껴야 하는 지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공권력도 존재하겠지.

이번에 처음으로 광주를 다녀왔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쁜 느낌이 아니라 긍정적인 느낌으로. 광주에서 놀랐던 건 대학생들이 몰려서 사적지를 다니니까 시민 분들이 말을 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다. 자신의 대학 동기 형이 신묘역에 있으니 보고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광주 시민 분들에게 여전히 일상이라는 게 느껴져서 서러웠다. 그리고 그 참담했을 10일 간의 공간들을 차례로 지나면서 너무 평화로워 믿기지 않았다. 이곳에서 총격전이 오가고 장갑차가 다녔을 거라고 생각해보았지만 쉽게 상상할 수 없었다.

부끄럽고 결코 잊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다.

네모

: 수치상으로, 아무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요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광주민주항쟁이 다가왔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이웃의, 친구의 일처럼 느껴졌고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일로 생각되었다.

뿌연

: 원래도 5·18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지만 책을 통해 보니 그 당시의 감정이 더 사실적으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의 언어로 표현되어 언제든 나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빵떡

: 지난 5월 18일, 한 교수님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다며 광주 사건에 대해 수업하셨다. 역사와 관련된 수업이 아니었기에 당시 난 '계속 기억하려고 하시다니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읽고 교수님의 수업이 당연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함께 기억해야 할 일이 생겼다.

시마

: 동호와 같이 놀기 좋아했고, 누나를 위해 분필 지우개를 몰래 가져온 정대. 아버지 세대의 학창시절 인물로서는 정말 무난한 인물이라 느껴지지 절대로 도시한복판에서 옆구리에 총을 맞아 세상을 떠날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광주 민주화 운동 피

해자들은 그 시대의 평범한 우리의 초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Q4. 저번 시간에 읽은 「외판방」과 비교해보았을 때 「소년이 온다」는 좀 더 전면적으로 사회적·역사적 사실을 문학으로 다루었는데요. 작품에 한해서 이야기해도 좋고, 문학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보아도 좋아요.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문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힘은 무엇일까요?

희페이퍼

: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개인한테는 광주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지 않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거나 한강이라는 작가가 유명해졌을 때, 사람들이 한 번 더 이 작품을 읽게 되고 접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게 되고 개인에게 닿게 된다. 개인과 사회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양분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두 개가 이어져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 같다.

펍펍

: 개인의 내면에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사회는 개인의 총체니까 그런 개인들이 모인다면 사회가 변화하지 않을까. 그러나 개인이 받아들일 때에 열린 마음도 필요하지만 분명,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셋

: 사회적 문제를 다룬 참여시 같은 것도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러한 저항시를 접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눈앞에 펼쳐졌을 때 혼란스러울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좀 더 익숙해지니까 당황하고 혼란해도 좀 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지니

: 개인이 사회에 좀 더 발돋움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집중 받지 못했던 소외된 개인에게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다. 사회적 주제로 문학을 다루면 이슈가 되고 문제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를 해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의의가 있지만 생각할수록 어렵다. 분명 어떠한 소재는 소재 자체만으로 슬픔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렵다.

형형

: 질문이랑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소년이 온다」랑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처

럼 사회적 문제를 다룬 문학들을 읽고 나면 관련된 사건들을 볼 때 그 작품들이 떠오른다. 그런 점이 개인적·사회적으로 연결되는 접점이 아닐까. 어떠한 사건, 뉴스를 보면서 문학 작품을 떠올리면서 되새기는 느낌.

빵떡

: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문학은 개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준다.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며 개인은 부끄러움을 느낀 개인들이 모여 지난 문제를 재조명 시킨다. 그로 인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뿌연

: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회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객관적 입장, 중립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닌 서로의 입장에서 마주할 수 있기에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다.

시마

: 사회적인 사건을 다루는 문학이란 정식으로 기록하는 정사와는 반대로 야사 같은 느낌인 것 같다. 기계적으로 몇 시경 몇 명이 무얼 하다 사망하고 어디로 이동하고를 적는 역사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인물의 관점에서 의식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더욱 독자의 이해를 보다 실감나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04.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접하다

일시 : 16. 07. 19 (화) PM 2:00 ~ 5:00

장소 : 성신여대 카페 민티

오늘은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이것저것 맛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설 단편집 황정은 「파씨의 입문」, 박준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지어먹었다」, 희곡 「푸르른 날에」, 황경신 「나는 토끼처럼 귀를 기울이고 당신을 들었다」를 읽기로 했습니다. 다들 재밌게 읽었나요?

Q1.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장르의 글을 읽으면서 장르별 문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 못 읽었어도 괜찮으니 장르별로, 혹은 작품별로 간단한 소감을 나눠봅시다. 좋았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어떤 장르가 가장 와닿았나요?

희폐이퍼

: 「파씨의 입문」을 읽었는데, 제목을 들었을 때의 예상과 달라 충격적이었다. 단편 '낙하하다'에는 낙하하는 게 무섭다는 내용이 있다. 읽으면서 지옥이 있으면 그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도 무서웠다. 책이 어려운 것 치고는 재밌게 읽었다.

규규

: 「파씨의 입문」을 읽으면서 기묘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용이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것들을 묘사나 형태적 측면에서 포인트를 잘 잡아서 표현했다. 제일 재밌었던 것은 '대니 드비토' 였다.

빵떡

: 가장 좋았던 장르는 에세이. '당신이 봄을 가지고 온다'라는 표현이 좋았다. 익숙한데 글로 보니까 새로운 느낌. 같은 맥락으로 '당신이 언제까지나 나에게 낯설었으면 좋겠다'는 구절의 표현력이 너무 좋고 예뻐다.

희폐이퍼

: 에세이를 읽을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진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이었는데 마음을 맞추는 게 즐겁지 않은 일이 되었다' 라는 구절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내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펍펍

: 에세이에서 '나는 당신을 쓰고, 당신은 나를 읽는다'는, 서로를 읽고 쓴다고 표현한

부분이 좋았다. 그 문장에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 담겨있는 것 같다.

네모

: 시를 좋아한다. 시는 짧은 것에 비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어서 좋다. 시인이 어느 환경에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게 된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시인은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게 부럽기도 했다.

시마

: 시집을 읽고 여태까지 시를 공부로만 마주했는데 직접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좋았다.

형형

: 시집은 일단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한 게 신선했다. 그리고 시집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담담하게 진행되는 것에 인상이 깊었다. 슬픈 것도 기쁜 것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담담했다.

'파씨의 입문'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에세이 같은 소설의 느낌이었다. 죽은 사람, 고양이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 글을 쓴 게 흥미롭고 좋았다. 이 소설은 읽으면서도 다 읽고 나서도 느낀 게, 책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다. 너무 짙어서 바로 눈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

「나는 토끼처럼 귀를 기울이고 당신을 들었다」는 시집처럼 제목이 좋았다. 이 책에서 문장의 표현력도 좋지만 여백을 보충하듯 보이는 그림들 또한 아주 인상 깊다. 여행 갈 때 챙겨야 할 책이라 생각한다.

지니

: 다 정말 좋은 작품이지만 개인적으로 시의 여운이 가장 오래 남는 것 같다. 이 시집은 소장하고 있는 시집인데 시집 제목만 읽어도 숨이 탁 막힐 때가 있다. 박준의 시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는 시인의 마음이 절절히 와 닿아서 여운이 길게 남았다. 물론 생각할 바도 전해주는 시인 것 같다.

뿌연

: 에세이와 희곡이 좋았다. '당신이 감추고 있는 것들이 출렁이다 문득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찰나를 낚아채기 위해' 등의 표현들이 너무 감각적이고 예뻐서 자꾸 눈길이 간다. 희곡은 한명 한명의 감정을 느끼고 극이라는 장르에서 오는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좋았다. 계속해서 감정이입이 된다.

Q2. 장르별 특성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이번 주에는 읽지 않았지만 첫 주에 읽은 비평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르별로 다를 수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예를 들어, 저번 주에 읽은 「소년이 온다」나 이번에 읽은 희곡 「푸르른 날에」는 둘 다 1980년 광주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희페이퍼

: 늘 관객의 입장에서 봤는데, 이번 기회에 희곡을 읽으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된 느낌으로 감상해보았다.

규규

: 희페이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하면서도 장르를 분류하는 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랑 소설이랑 에세이 등 이것 분류할 수 있을까. 그 기준에 대해 문득 의문이 든다. 혹은 이것 꼭 분류해야만 하나?

희페이퍼

: 예를 들어 이석원 작가의 책을 읽었을 때 에세이로 분류된 책이었는데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장르에 따라 특성을 구분하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의 기준도, 독자의 기준도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빵떡

: 간접 경험을 하기 가장 좋은 장르는 소설이 분명하다. 비평이나 시를 통해서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소설만큼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펑펑

: 분류하기 애매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사실 시나 소설의 차이는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쓰이는 걸 보면 시는 바로 쓰이고, 소설은 10년 후에나 쓰일 수 있다는 글을 어디선가 보았다. 그것도 하나의 차이이지 않을까. 시는 느낌이 강하고 소설은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사건이 진행되고 난 후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것.

규규

: 시는 깨를 압축해서 식용유를 만든 거라면, 소설은 씨실과 날실이 얽힌 옷이 아닐까?

빵떡

: 소설은 손가락으로 툭툭 때리는 느낌인데 시는 죽창으로 쳐 맞는 느낌? (웃음)

네모

: 시는 좁고 깊게라면 소설은 넓고 얇게. 시는 읽는 자의 생각이 많이 요구되지만 소설은 흘러가는 느낌. 개인적으로 시를 읽을 경우는 내 세계에 빠지고 싶을 때, 소설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싶을 때 읽는다.

시마

: 같은 경험을 해도 시는 압축된 언어로 표현. 소설은 그걸 넓게 펼칠 수 있다. 소설이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뿌연

: 다른 이의 얘기를 듣는 것과 내가 그곳에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소설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들려주고 나는 그것을 상상해본다면 희곡에서는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상상을 한다.

형형

: 소설은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을 한다든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비유를 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상황에 감정을 이입시킬 수 가 있다.

이와 반대로 희곡은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들도 중요하다. 배우들의 연기에 따라 그 장면에 관객들의 감정을 이입하느냐 못하느냐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설은 문장의 표현으로, 희곡은 배우와 글의 조화로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 생각한다.

지니

: 정확히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충격을 주기에는 희곡이 보다 효과적인 것 같고 사고의 확장이나 오래 남는 여운을 주기에는 시가 제일 적절한 것 같다. 소설은 현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고 에세이는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배우기에 적절한 것 같다.

Q3. 내가 작가가 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내용의 글을 쓰게 될까요? 그 이유는? 꼭, 한 가지 장르가 아니어도 좋아요.

네모

: 전에 생각해봤었다.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좋아한다. 늘 에세이 형식의 글을 블로그에 비공개로 쓴다. 자유로운 형식이니까. 또, 어플 중에서 씬, 이라는 어플이 있다. 그 곳에 쓸 때가 있는데 시의 형식으로 쓴다.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미래에 작가가 된다면 시나 에세이를 쓰게 될 것 같다.

규규

: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 가끔 심심하면 작가의 꿈을 꿨었다. 대학교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잘하지 않았지만 살면서 글을 놓고 살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작가가 된다면, 모든 장르를 넘나들 것 같다. 앞으로 글을 쓰지 않는 순간은 없을지도.

빵떡

: 사람들이 뭐 할거냐, 라고 물을 때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쓰면서 살 거라는 대답을 한다. 무슨 장르를 쓸 거다, 라는 대답은 못하더라도 내 얘기를 쓸 것 같다. 힘들어봤으니까 사람들에게 힘들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희페이퍼

: 내가 꼭 쓰고 싶은 장르는 에세이다. 이석원 작가님의 소설을 닮은 에세이를 쓰고 싶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솔직한 글을 써야 할까, 라는 게 늘 고민지점이다. 쓰게 된다면 문체가 정돈되더라도 내용이 솔직한 걸 쓰고 싶다.

시마

: 글을 쓰게 된다면 에세이 형식으로 하루하루 느낀 점을 기록하고 싶다. 글을 쓰면서 사소하게 지나간 것도 생각을 하게 된다. 글을 자주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고 싶다.

핑핑

: 언제나 읽고 쓰는 것만이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 사실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매번 바뀌지만 아마 쓰게 된다면 시를 쓰게 되지 않을까. 문학도를 꿈꾸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다. 사실 글은 배우지 않아도 쓸 수 있지 않나. 그 말이 자주 희망과 절망을 넘나들게 한다. 대학을 다니기 전에는 그 말이 나도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줬다. 예전보다도 글을 자주 못 쓰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내가 이 길을 향하더라도 글을 못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서 어렵다. 사실 규규의

말처럼 나도 살면서 글을 놓지는 않을 것 같다.

형형

: 소설이란 장르로 에세이처럼 글을 쓰고 싶다. 일상생활에서 소설의 특징인 상상을 곁들여 표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해보고 싶다. 나를 바라보는 사물의 시선에서 쓰는 글이나 사물 하나에 얽힌 사연 같은 걸로 글을 써도 재미있을 것 같다.

뿌연

: 에세이 혹은 시를 써보고 싶다. 나의 언어를 간략하면서도 담담하게 써보고 싶다.

지니

: 시가 가장 쓰고 싶고 쓸 일이 많다.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발견하는 순간이 오면 시로 써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내용은 항상 바뀌지만 읽는 사람 속에 옅히는 시를 쓰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소설도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표현하고 싶은 현실이 요즘엔 자주 발견된다.

무용의 쓸모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읽으면서 나도 읽어보아야지, 싶었던 책이 생겼나요? 혹은 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떠올랐나요? 만일 그러했다면, 위의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용의 쓸모는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언젠가 또 다시 종이 위에서 만나요.

편집후기

김규규

1. 여전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 사람을 꽤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한 달 동안 있었던 공간이 꽤 따뜻해서 또 살아갈 에너지를, 용기를 얻었다.

2. 간만에 보고서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기사도 아닌 글을 쓸 수 있어서, 쓸 수 있음을 목격해서 이제는 스스로를 불모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시를 몰랐을 때의 시가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었다. 스스로에게 불모지라는 사형선고를 내린 뒤에 그냥 그대로 외면해버렸다. 그런데 다시 불타버려서 폐허가 된 땅을 돌아볼 수 있었다. 거뭇한 재가 어찌면 비료가 되어줄지도 모를 노릇이다. 다시 싹이 돋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3. 모순적이게도 디스토피아 소설과 성장 소설을 가장 좋아한다. 결국 무언가를 깨뜨리고 균열을 낸다는 이유로 좋아한다. 인생책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당신도 읽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적으려고 한다. 하나는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채지민 「내 안의 자유」이다. 전자는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읽어야지, 하고 버르고 있는 책이고 후자는 많이 읽었다는 것만 기억나는 책이다.

4. 많이 읽고 많이 웃고 많이 우세요. 많이 우세요. 그게 꼭 소설이 아니라도 좋으니 만화든, 드라마든, 영화든 시이든, 수필이든 뭐든. 그러다보면 어느 날 껌질을 깨고 나온 자신이 있을지도 모를 노릇이다.

네모

1. 인문학 동아리에 이미 속해 있으면서 내가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 고민하는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건 인문학 동아리를 하면서 인문학의 한계를 직접 느꼈기 때문이다. 인문학 동아리에서조차도 인문학이 온전히 사랑 받지 못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다들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단순히 인문학에 대한 동아리가 아니라 직접 다 같이 고민하는 동아리에 들어와서 같이 답을 찾고 싶었다. 부끄럽지만 나 혼자 고민할 때에는 자꾸 미루고 안 될 거라는 생각에 가로막혀 답을 찾지 않으므로.

2. 이번에 동아리를 하면서 언니 오빠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다. 예정에 없던 주 7일 알바를 하게 되면서 항상 모임도 일찍 빠져 나와야 했고 책도 잘 읽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가족 일이 겹쳐버려 몇 없는 모임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게 너무 죄송했다. 제대로 내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괜히 욕심 부려 동아리를 들게 된 것 같았다.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맞아주시는 우리 무용의 쓸모 팀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3. 이번에 동아리를 하면서 내가 참 표현을 못하고 나의 생각은 아직 알고 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평소에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실행했다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 싶다. 2학기 때에는 반드시! 책을 더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뉴스를 지속적으로 챙겨볼 것이다. 그리고 글 쓰는 연습의 필요성도 느꼈다.

4. 추천하는 책, 어떤 하루 - 신준모

사실 책을 읽고 나서 딱히 기록해두지도 않고 엄청 감명 깊게 읽은 책이 거의 없어서 추천하려니 생각나는 책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 책은 입시가 끝나도 계속 공허하고 우울할 때 나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었다. 이런 류의 책을 보통은 안좋아하지만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 어떤 사람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분들도 이 책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빵떡

나에 대해

내 향을 만들고자 온 곳에서 나와 다른 이들을 만났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말을 통해 내 향은 더 짙어졌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그 누구도 틀림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관점을 배울 점으로 만들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꼭꼭 씹어 소화했다.

향이 짙은 여러분들에게 사유리의 「눈물을 닦고」를 추천하고 싶다. 특히 힘들 때 읽기를 권한다. 책에 등장하듯, 눈물을 참는 것보다 눈물을 자신의 손으로 닦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행동이다. 삶이 버거울 때 이 책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소망을 말하며 글을 매듭 짓고자 한다. 이 세상이 예쁜 말로 가득차길 바란다.

뿌연

글을 쓴다는 것, 다른 삶을 본다는 것. 사람들과 함께 문학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미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것 자체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함께 둘러 앉아 문학에 대해 얘기하면서 좋아하는 문장에 대해 말하는 순간. '문학과 일상을 함께하고, 삶에서 쓸모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문학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의 시간 속에서 10명의 사람들과 나눈 소중한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슴 한 구석에 문학세포들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더 읽고 싶고 가슴이 뛰는 감정을 몇 년 만에 느껴봅니다.

무용의 쓸모는 한 달 간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그러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두가 시인이 되는 세상'이 될 때까지 이어가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지금을 시작으로 더 많은 것을 상상 해봐요.

문학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억을 마음 깊이 묻고 언제나 꺼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는 원래 문학을 좋아하고 책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책 읽는 것이 지겹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읽게 되다보니 책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기억 저편으로 보냈습니다.

무용의 쓸모에서 만난 '나는 토끼처럼 귀를 기울이고 당신을 들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상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책 읽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길 바랍니다.

선셋

이상한 시장을 하면서 팀원들과 한 달 동안 가족 보다 더 자주 만난 셈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문학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결국 의식은 기억 없이 기어 다니다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구자 까지 도달했어요. 이게 바로 쓸모 아닐까요.

어떤 시의 극적인 부분이나 어떤 단상의 날렵한 부분은 늘 내 가장 여린 부분을 건드리

고, 삶의 성찰에 대해 일깨워줍니다. 나는 문학이 사람을 가장 나약하게 만들고 가장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사랑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가장 나약할 수 있고 가장 강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내가 비로소 나일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문태준 시인의 가재미라는 시집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어느 날 내가 이곳에서 가을강처럼'이 실려 있어요. 마음 허할 때 읽고 또 읽고 더 허해지고 싶을 때 좋은 글입니다. 저에게 가장 극적이고 예민하게 다가온 문장들이라 소중해요.

시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집을 작성하게 되었다. 문학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내가 좋은사람들과 이런 문학적인 활동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안타깝지만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고, 이 활동을 통해 여러모로 나태했던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수업'이라는 책이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바탕으로 사람의 48가지 감정을 대표하는 소설을 임의로 엮어놓았다. 당시 인문학 열풍이라는 말과 함께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책이었지만,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팻 캐스트를 들었던 입장에서 단순히 한때의 열풍으로 지나갈만한 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들이 정해놓은 규범가치로 앞을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의 감정에 따라 규범가치를 판단하라는 작가의 말은 주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 주인공들에게 의미를 줄 것이다.

지니

문학을 사랑하는 문학도로서, 현대에 문학이 과소평가되며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웠다. 그래서 문학이 현대인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는 데에 보탬이 될 방법을 꾀했었다. 또한 나를 포함한 현대 청년들이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나아가는 노력을 한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다. 한달동안 '무용의 쓸모' 팀으로써 한 활동들은 그러한 나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었다. 우리의 활동이 바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았을 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이정표 정도는 세웠으리라 믿는다. 함께 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더해서 이 문집을 볼 사람들에게 내가 문학을 사랑하며 성장하게 해 준 게리 D.슈미트의 「고래의 눈」을 추천하고 싶다. 주인공과 함께 당신도 성장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내가

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해 준 이장욱의 시집 「내 잠 속의 모래산」도 추천하고 싶다. 당신도 어떤 객관적인 아침에 객관적인 아침을 읽었으면 좋겠다.

핑핑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한 한 달의 시간이 드디어 작은 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글을 쓰고 읽으며, 그리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학이란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건 각자의 세계를 가진 우리를 한 공간에 있게 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문학의 힘이란 게 정말 있을까, 하고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면 많이도 외롭고 무섭습니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을 꿈꾸다 보니 합리적인 것만이 가치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서 많이도 뒤쳐져 있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나날들에 있어 당신들을 만나 조금은 명확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당신들을 만나러 오는 길,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알 수 없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함께 있는 순간에는 이상할 만치 나로 여겨지는 내가 되었으니까요. 그것이 문학의 힘이겠지요. 언제까지 제가 이 힘을 확신할 수 있을지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심신이 많이 아픈 한 달이었습니다. 극도의 희망과 절망이 차례로 저를 엄습해왔습니다.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지요. 개인을 넘어 제가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한 척 하려고 애쓴 것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용의 쓸모는 저의 개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모자란 저를 믿고서 한 달 간 함께 걸어준 사람들을 조심스레 마음에 품습니다. 펍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 인생의 책 1권을 추천해야 하는데 제 짧은 인생의 책은 외딴방과 소년이 온다였습니다. 이미 무용의 쓸모에서 제 모든 걸 내보인 셈이지요. 또, 무슨 책을 제가 추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책을 권하고 싶지만 인생의, 라는 전제가 저를 무겁게 합니다. 그 전제를 벗어던지고 이야기해보자면 시를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하는 말입니다. 황인찬의 『희지의 세계』나 파란색 표지를 가진 김이강의 시집이 참 좋더군요.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형형

항상 '운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후회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택한 활동 또한 마찬가지였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잊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한 여름 밤의 부는 서늘한 바람과 같은 것이 말이다.

지금 활동은 이번 여름의 서늘한 바람이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 수많은 것들이 내게 더위는 잠시 잊으라고 말한다. 정말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위를 느끼지 않는다. 만남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시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를 배우려 노력한다. 이번에 만난 인연들은 내 20대에 있어서 선생님과 같았다. 그들 덕분에 한 단계 더 성장한 기분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 알았을 때마다 막을 틈도 없이 내 몸은 감탄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나는 서늘한 바람을 만나 다행이도 새벽에 잠을 뒤적이지 않는다. 서늘한 바람을 찾지 못해서 새벽에 뒤적이는 당신. 그런 당신에게 좋은 인연이 있길 바라며 '새벽 세시 바람이 부나요?'라는 책을 추천한다. 책을 읽다 보면, 새벽에 잠을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서늘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올지도 모를 일이다.

희페이퍼

내가 시인이나 작가는 아니지만, 언젠가 시인이나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일은 멋진 일이었다. 무용의 쓸모 팀을 만나 내 바람이 조금 더 구체적이게 됐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나눈 시간이었다.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생각을 나누는 게 바람직할까, 에서 시작된 고민은 문집을 만들고 활동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어떤 생각이든, 무슨 글이든'으로 바뀌었다. 또 내가 이런 글을 쓰게 된다면 얼마큼 솔직해야 할까를 고민 해 왔는데, 그 때마다 닳고 싶던 작가를 소개 해 드리고 싶다. '이석원' 작가 님 인데, 대표작 <보통의 존재>를 읽어 봐도 좋고, 이후에 나온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을 읽어봐도 좋겠다. 그의 에세이에서 솔직함과 또 다른 감정들을 느껴보길 바라고, 이미 읽어 보셨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보시길!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